

# <<무언을 먹을까?>>

김도한

화제에 끝나고 싶어졌다 이비가 100에 같다  
모다 징징지기만 있다

그런데

이비가 는 짜장면 밥이 있다 그때 매뉴가  
많아서 멀리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는 광복  
엄마는 자작편 그래서 나의 선택은 탕수육이었  
다 ~~그때 내가 탕수육을 먹는 걸 알면 그때 내가 알면~~  
가 "탕수육은 고기 같아 먹고, 자작은 광복 같아  
이 광복 자작면 먹자" 그래서 나는 광복에게

"먹고 했다" 그때 식당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 테이블 밖에

이제야 우리 음식이나 올 다 징징하고 짜장면  
을 먹었는데 자작연예 쇼를 봤다  
같은 맛이 봤었다. 그리고 탕수육도 먹어 봤다.

탕수육 대고기는 축축하고 탕수육에 푸카지는

부분은 바삭했다. 탕수육에 양파와 장면을

가져서 뒤집으면 진짜로 입에서 푹푹 떠나지

않았지만 맛이었다. 짜장면 육수를 먹고 배운게

먹고 싶어서 아빠가 짜장면을 먹었다

거친 매운다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물에 사내가 안들

들었다. 그래서 물도 못 먹었다. 그때 내 입에

간과는 걸려 있다. 진짜로 매운다.